

첼발리스트 최현영 연주 전주서 만나다

더문화, 28일 '월간더문화' 두 번째 공연으로 바로크 음악 진수 느낄 수 있어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윤정)의 '2022 월간더문화'가 지난 달에 이어 오는 28일 '첼발리스트 최현영'의 연주로 두 번째 문을 연다.

2022 월간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2022년에 새롭게 기획한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매월 다른 주제와 아티스트로 다채롭고 활기찬 공연을 꾸린다고 한다.

또한 전복에서 만나보기 힘든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열린 음악회이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복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다 함께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써 도내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열린 환호와 함성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워준 '일라이나 이 피아노 트리오'의 5월 월간더문화, 그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 번 공연장에 꽃 피워줄 첼발리스트 '최현영'이 6월 월간더문화를 아쉽게 준비하고 있다.

첼발로와 포르테피아노 연주자 최현영은 서울예고졸, 서울대학교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중 바로크 음악과 첼발로의 매력에 빠져 도봉하였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첼발로, 통주저음, 실내악과 포르테피아노를 배우고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브뤼셀 국제 고음악 콩쿠르에서 포르테피아노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하였고 파리 필하모니 산하의 악기박물관에서 여러 레퍼토리를 진행 후 귀국하여 옛 건반악기의 아름다움을 국내 청중들과 나누기 위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첼발리스트 최현영의 6월 월간더문화 공연에서는 헨델, 바흐 등의 첼발



사단법인 더문화의 '2022 월간더문화'가 오는 28일 '첼발리스트 최현영'의 연주로 두 번째 문을 연다.

로 연주곡을 통해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이후에도 2022 월간더문화로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여럿 있다. 7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박 듀오'의 피아노 리사이틀, 8월에는 월간음악춘추가 선정한 '21세기 한국을 빛낼 젊은 연주자 23인'에 이름을 올린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9월에는 최정상 성악가들의 팜페라그룹 '크레도', 10월에는 EBS 세계테마기행에 출연한 바 있는 실력과 메조 소프라노 '장은', 11월에는 바리톤 '박후우'와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한 자리에서 정곡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12월에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송년의 밤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2020년 8월 설립되었으며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인 2022 월간더문화를 통해 도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도민과 지역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더 다양한 양질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음악회를 개최, 즉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객이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무대와 연주의 기회를 부여하여 도내 예술인들이 서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무대 공연 기회로 인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윤정 이사장은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문화예술계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2022월간더문화의 풍성한 공연으로 지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 즐겼던 문화가 있는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 이야기 '데이지'

북아일랜드 아동문학가 마이라 제프 소설

그림책 '유치원 가지 마, 벤노!'로 국내에 알려진 북아일랜드 아동문학가 마이라 제프가 이번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어린 시절 역사 소설, 그림책, 청소년 소설 등 다양한 글을 썼다. 국내에도 소개된 그림책 '유치원 가지 마, 벤노!'로 2016년 아일랜드 최고의 아동문학상인 CBI 올해의 책, 2018년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아너리스트에 선정되었다.

2020년 쓴 소설 '데이지'로 KPMG 아일랜드 아동도서상을 받았다.

이번에 출간된 소설 '데이지'(양철북)는 마주하기엔 괴로워서 피하고 싶고 피하기엔 차마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를 담담하고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 작품은 '시로 쓴 소설'이란 새로운 형식으로 속도감 있게 읽히며 문자메시지 같은 아이들 언어로 쓰였다.

또래의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소녀 데이지. 어느 날 데이지는 인터넷으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처음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간 날, 데이지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다. 데이지의 실종은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절친 이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주제로 다룬 이



작품은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덮개 빠져게 되었는지 데이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한다.

소설은 1부는 데이지, 2부는 이머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마치 데이지가 못다 한 이야기를 이머가 바통 터치를 받아 마치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뉴스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

문체부, 경진대회 개최... 상금 425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보유 문화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찾는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사례 등을 발굴한다. 문화데이터는 공연과 전시·도서·영화·문화재·콘텐츠 분야 관련 데이터로, 문화공공데이터포장, 문화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개방되고 있다.

올해는 △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공모가 이뤄진다.

신실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 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14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자들에게는 문

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4250만원이 수여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은 행안부가 주최하는 '별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받을 수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전주문화재단,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 초청 특강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출연기관으로, 차재근 원장은 현재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날 강연은 새 정부 문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진단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정책 가치 변화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팔복예술대학 특강으로 이뤄진 차재근 원장 초청 강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를 맞아 지역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예측해 미래 미션을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자연과 함께하는 고창 힐링 영화학교' 교육생 모집

고창군이 지역의 영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연과 함께하는 고창 힐링 영화학교' 교육생 오는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고창 힐링 영화학교'는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부터 추진한 지역 영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영화제 실무와 영화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고창농촌영화제의 미래 인력양성과 고창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해 영화·영상 제작한다.

올해 '고창 힐링 영화학교'는 '지역영화인력 화성문교육 지원사업(영화진흥위원회 주관)'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전북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다.

교육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오는 10월28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고창농촌영화제' 기간 중 상영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7월 25일부터 6일간 고창군 관소리전수관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공고일 기준 고창 및 전라북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화제작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gff.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제12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2022년 6월 25일(토) 오후 4시
마을센터 그레이스홀(2층)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주매일신문사, 전주시
문의전화: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업무국 063)288-9700

**본 행사는 전주시의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